



▷보이지 않지만 그 어느가족보다도 행복하다. 컷이들 킴, 둘째 마크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

사람들은 묻는다. 앞이 안 보이는 이들에게도 희망이 있겠느냐고. 엘렌과 그 가족은 말한다. "서로 믿고 사랑하기에 희망은 늘 우리 곁에 있다고..." 눈이 아닌 귀로, 손으로, 세상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들. 보이지 않는 일이 다소 불편해도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믿는다. '보이지 않는 사랑-엘렌 가족 이야기'. 한국에서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버려진 네 명의 아이들을 뜻뜻한 사회인으로 키워 낸 이들의 아름다운 인연과 감동적인 사랑이야기가 지난 18일 KBS 제1TV '일요스페셜'을 통해 방영됐다. TV를 시청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들의 위대한 사랑에 경의를 표했다. 혈육과 인종 그리고 장애에 대한 편견이 만연해 있는 지금의 우리 사회에 엘렌과 그 가족이 진정한 사랑과 참다운 보살행의 실천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편집자>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시력을 회복한 둘째 마크가 식탁에서 가족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다.

보이지 않는 사랑-엘렌 가족 이야기

삶 자체가 보살행 '불자에 귀감'



28년을 한 집에서 서로를 보살피며 살아온 엘렌의 가족. 하지만 그들은 자신과 서로의 모습을 한번도 본적이 없다. 집안의 불이 모두 꺼져 있어도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 보이지 않는 그들은 오히려 더 큰 사랑과 행복을 가꾸어 가고 있다.

미국 볼티모어에 사는 엄마 메리 니콜스, 아빠 울로 니콜스 부부는 평생 맹인으로 살아왔다. 그런 그들이 28년전부터 한국의 맹인 아이를 네 명(엘렌, 킴, 마크, 세라)을 입양하여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왔다. 맹인의 몸으로 맹인아이들. 그것도 혈통이 다른 한국 아이들을 입양하여 키워온 니콜스 부부. 목소리와 체취만으로 서로를 보살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들 가족의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결혼 후 니콜스 부부는 아기를 가질 수 없었고, 수차례 입양을 원했지만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아기를 키우냐는 이유로 뜻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러다 한 복지단체의 맹인부모교육을 받고, 76년 12월 2일 처음으로 첫 아들 킴을 입양했다. 한국에서 데려온 것을 기념해 이랜드 킴으로 지었다. 입양 당시 2살이었던 킴은 부모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금은 운전이 가능할 정도로 시력을 회복했다. 현재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일하며, 지난해 결혼해 따로 한 가족을 이루어 산다.

엘렌의 오빠이자 둘째 아들인 마크 또한 부모의 노력으로 현재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시력이 회복됐다. 최근 자신이 일하는 음반가게에서 승진해 집에서 독립해 나갔다. 마크는 스스로를 미국인으로 생각한다. 자신을 버린 한국의 부모를 찾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

엘렌은 83년 미국에 왔다. 입양 당시 4살이던 엘렌의 한국 이름은 김광숙이었다. 일산 홀트복지재단을 통해 니콜스 부부가 입양했다. 두 오빠와 달리 엘렌은 선천적인 신경계 이상으로 현대 의학으로는 이식수술이 불가능하다. 겨우 불뚱을 덩어리 정도로 인식할 뿐 형태를 인식하지 못한다.

"미국에 처음와서 한달 쯤 됐을 때 엘렌의 4번째 생일을 맞았어요. 그날 엘렌이 제게 '어부바' 놀이를 하자고 했지요. 그 '어부바'도 지금은 기

시각장애인 니콜스부부

한국아이 4명 입양

가족 6명 시각장애인

눈대신 마음으로 행복

역이 가물가물하네요" 아빠 울로 니콜스씨는 엘렌을 입양했던 당시의 행복감을 이렇게 말했다.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에 장애가 있을 수 없어요. 볼 수 없다고 사랑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을 안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현재 니콜스씨는 미연방사회보장국에서 33년째 근무 중이다. 중증 시각장애인이지만 모니터를 보지 않고도 점차 시스템으로 컴퓨터를 자유롭게 사용하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신의 일을 처리한다. 안정된 직장이 있었기에 니콜스씨는 네명의 자녀를 입양해 키울 수 있었다.

엘렌 가족의 유일한 걱정거리는 귀염둥이 막내인 세라다. 올해 18살이지만 지능은 2살 정도에 불과하다. 시각장애와 중증 정신장애(자폐증)를 갖고 있어 주중 5일은 메릴랜드 주립맹인학

교에서 교육과 치료를 받고, 주말에만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낸다. 88년부터 12년째 맹인학교에서 치료와 훈련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장애가 심하다. 지금도 니콜스씨 부부와 언니 엘렌은 한 집에서 더듬거리 는 손길로 세라를 돌보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세라를 사랑해요. 때로 어렵거나 힘들기도 하고 절망적인 기분이 들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세라를 사랑하지 않을 순 없잖아요. 세라도 소의당하지 않고 사랑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네 아이 모두가 버려졌다는 게 너무 가슴아프다는 엄마 메리 니콜스씨. 킴은 경찰서에, 세라는 기차역에, 마크는 어머니가 낳자마자 병원에 버렸다. 엘렌은 시장에 버려져서 종일 울고 다녔다 한다.

엘렌은 요즘 들어 매주 화요일 이웃의 농아청년과 함께 교회에 간다. 장애인이 많이 보이는 한국교회인 워싱턴 말갈 신교회에서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다. 자신과 비슷한 한국인들 속에서 동포애를 느끼며, 자신의 정체성 찾기에 한 발짝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엘렌에게 소원이 생겼다. 한복을 맞추는 것. 엘렌의 생일을 앞두고 엄마와 찾은 한복가게에서 엄마와 엘렌은 "이것 참 예쁘다. 짙은 청색은 뉘다. 밝은 청색이 예쁘다. 오히

려 빨간색이 더 낫겠다"며 의견을 나누었다. 비록 볼 수는 없지만, 색에 대한 개념은 확실해서 고르는데 꽤 시간이 걸렸다. 색을 본 적이 없지만 이들은 이들의 방식으로 사물과 세상을 느끼는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엘렌은 최근 볼티모어 입양기관을 찾았다. 만 21세가 되어야만 입양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한 법 때문에 엘렌은 생일을 맞은 후에야 자신과 관련된 기록들을 볼 수 있었다. 마침내 자신의 뿌리를 찾아보지만 입양 서류에는 '착하고, 똑똑하고, 안기길 좋아하는 아이'라는 내용 외에는 누가 자신의 부모인지, 어디가 고향인지, 출생과 관련된 그 어떤 정보도 찾아볼 수 없었다. 생모를 모르기 때문에 늘 자신의 일부가 빈 것 같다고 느끼는 엘렌. "생모는 어떤 사람일까. 혹시 버린 것이 아니라 길을 잃은 것이 아닐까." 보이지 않는 그의 삶에도 추억은 있었다.

"아빠 엄마를 너무 사랑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지만 부모님께서 제게 주신 사랑에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엄마 아빠 니콜스 부부의 자녀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은자 기자 (ejee@buddhapa.com)



▷눈이 아닌 귀로, 손으로, 세상을 느끼고 살아가는 엘렌과 그 가족들. 보이지 않는 삶이 오히려 더 큰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2개월간 엘렌 가족 지켜본 취재진 "진정한 사랑을 봤다"

정현모 PD: '엘렌 가족이야기'를 통해 장애와 혈통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려 했다. 특히 그동안의 입양 스토리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최대한 인유애를 구현하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그 속에서의 일상적 삶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다 프로그램에 담지 못해 아쉽다.

엘렌의 경우 너무 밝고 똑똑한 아이다. 말을 보지는 못하지만 영혼이 맑은 엘렌은 니콜스씨 가족의 기동과도 같다. 그래서 프로그램 제목도 '엘렌 가족 이야기'로 정했다. 엘렌 가족이 사는 동네는 흑인들이 사는 곳인데도 세탁소 가는 일에서부터 시장 보는 일까지 갖가지 문제들을 이웃이 너무 잘 도와준다. 장애를 가진 이웃의 불편함을 함께 나누며 사는 것이 그들의 생활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

이승한 카메라맨: 처음 우리가 엘렌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워싱턴DC에서 볼티모어로 갔 때였다. 초행길이라 도중에 길을 잃고 헤메다가 니콜스씨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구했다. 그때 니콜스씨가 주변 건물의 위치와 이름, 모양까지 상세하게 설명하며 길을 알려 주었는데, 놀라게도 우리가 차로 가는 도중에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시각장애인이라 소리에 매우 민감한데, 막내딸 세라에게 밥을 챙겨 주고는 그 옆에서 서서 딸아이의 먹는 소리를 귀로 들으며 얼마나 먹었는지 알려주는 니콜스씨의 모습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렌과 그 가족들이 말을 보지 못하니까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다. 그들은 우리들보다 몇 배나 더 섬세하고 예민해서, 처음 일주일간은 우리가 무얼 하는지, 어떻게 찍는지 매우 불안해 했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죽업죽

"불이야, 불! 지리산에 불이 났다!" 고요하던 지리산 뒷 방공면 일대가 갑자기 떠들썩해졌다. 집집마다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삼과 곡괭이, 낫을 들고 지리산 자락을 향해 정신 없이 오르고 있었다. 평소 이렇게 개울을 건너는 길을 달리면 숨이 찰 법도 한데 마을사람들은 어떤 일인지 힘든 줄을 모르고 뛰고 있었다. 얼마쯤 달렸을까, 앞 사람

이 '저기다'고 소리쳤다. 불길은 지리산 수변대에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이 불구경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우변대의 불길을 바라보면 마을사람은 신기하게도 편안한 느낌에 젖어 들었다. 순간, 너도 밝힘이 오고 나도 밝힘이 오면서 희열이 솟구쳤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확자하던 마을사람들 속에서선 아무도 말을 하는 이가 없었다.

심장 맑게 하고 두통 해소

더 이상 산불이 아니었다. 어느덧 날이 밝아오자 그 불빛의 광채는 선 속으로 고요히 빨려 들어갔다. 공재가 솟구치던 바로 그 자리에는 늘 보았던 초라한 행색의 나무꾼 스님 당시 마을에선 수월 스님을 그렇게 불렀다 한 분이 막 참선을 끝내고 어침공양을 준비하느라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스님이 아침 먹거리로 준비하는 것은 대나무 잎을 삶은 물에 쌀 한 주먹을 넣고 끓인 죽이 고작이었다. 천하의 생불행(生佛幸) 수월 스님은 죽업죽 한 그릇으로 관음의 길을 가고 화엄의 길을 뚫으

셨던 것이다. 이 일화는, 지금도 전남 구례의 공의면과 방광면, 충남 청양 장곡사 마을에서 촌로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수월 스님은 경허 스님의 만상좌로 평생 직신을 삼아 길가는 이에게 나눠주며 굶주림을 수행으로 실천하다 1928년 중국 화엄사에서 열반하셨다. 수월 스님이 드신 죽업죽은 심장을 맑게 하고 열을 내리는 데 좋다.

■ 약선식 연구가.<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죽업 20g, 생석고(生石膏) 10g, 현미찰 100g
 요리법 ①죽업을 깨끗이 씻어 잘게 찼 후, 15배 가량의 물을 붓고 20여분간 끓여 찌꺼기를 걸러낸다. ②생석고를 부수어 15배의 물을 붓고 30분간 끓이다가 체에 걸러 약액을 받는다. ③이미 불린 현미찰을 솥에 넣고 ①과 ②의 약액과 물을 붓고 팔팔 끓이다가 약한 불로 달여 소금간을 해서 먹는다.
 맛의 담담함을 잃으며 효능 풍열, 두통, 눈이 뜯개지는 증세, 소변에 피가 보이는 증세에 좋다.